

봄 철쭉·가을 억새·겨울 눈꽃...계절마다 새로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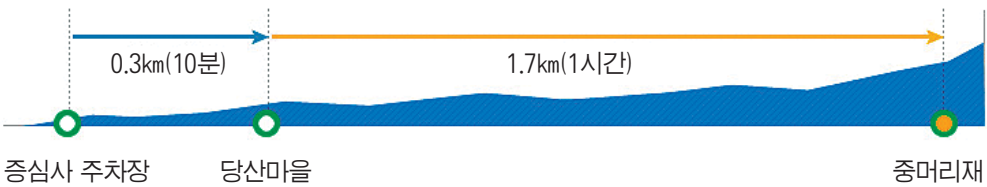


무등산 가을 탐방길에 오른 등산객들이 은빛 억새밭을 건너고 있다.

/김진수기자jeans@kwangju.co.kr

당산나무 코스 (2km·1시간 10분 소요)

탐방로 구간별 난이도
■ 보통



무등산의 정맥에 올라 전체적인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 탐방코스다.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유지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
▲증심사 입구-당산나무 구간(0.3km·10분)
증심교를 지나 계곡을 건너면 증심사 200m전에 있는 입구 표시석을 만날 수 있다. 일주문을 지나 아름다운 숲 속 길을 지나가면 증심사가 눈에 들어온다. 폭 넓게 잘 정비된 탐방길을 걷다보면 오래

된 거목의 당산나무를 만나게 된다. 수령이 700년 된 느티나무로, 광주시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당산나무-종머리재 구간(1.7km·60분)
당산나무를 지나 숲 속 오솔길을 좀 더 오르면 돌과 계단, 바위 너털 등이 나오는 험난한 길이 이어진다. 천제단, 봉황대에서 올라오는 삼거리와 만난 후 종머리재에 오르면 봄엔 철쭉을, 가을엔 은빛 억새를 구경할 수 있다.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24 등산 코스(2)

산 중턱서 광주 전망 한눈에

누구나 쉽게 오르는 '당산나무 코스'

만연사 휘도는 폭신폭신 흙길

정상 완만한 능선 '만연산 코스'

무등산 으뜸 절경 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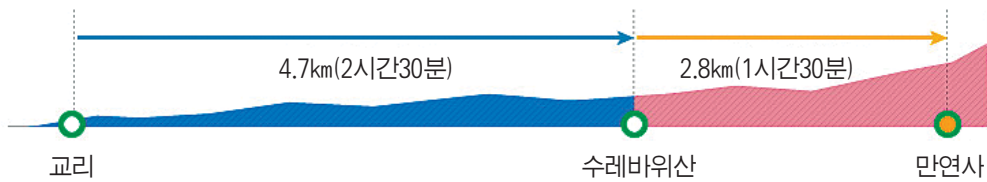
억새 날리는 백마능선 '복산 코스'

아기자기 아늑한 숲길

산사 규봉암 '도원마을 코스'

수레바위산~만연산 코스(7.5km·4시간)

■ 보통 ■ 어려움



화순의 진산(鎭山)인 만연산과 그 아래 자리한 만연사를 둘러보는 코스로, 대부분이 흙길이다. 만연산(668m)은 무등산의 지붕으로 불리기도 하며, 날카로운 바위 봉우리가 솟아 있어 험해 보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부드러운 능선이 맞닿는다.
▲교리-수레바위산(4.7km·2시간 30분)
화순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교리터널 상단 우측부터 시작되는 탐방로로, 길이 잘 다져져 있지만 초입부는 경사가 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수레바위산 상단 능선과 만나게 된다.
▲수레바위산-만연사(2.8km·1시간 30분)

수레바위산(504m)에서 만연산까지 가는 길은 완만한 능선길로 편하게 탐방할 수 있다. 능선길을 따라서 1.3km를 가면 만연산 능선사거리가 나오는데, 우측은 만연사 하산길, 좌측은 너와나목장을 거쳐 중지마을로 내려가는 길이다.
만연산 정상은 능선사거리에서 오르막 길을 따라 200m 더 올라가야 한다. 만연산 정상에서 만연사로 내려가려면 다시 능선사거리로 내려와서 좌측 만연사 방면으로 1.5km를 내려가면 된다. 만연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말사이다. 나한산 이라고도 하며, 1208년(고려 희종 4) 만연이 창건했다.

안양산~복산 코스(12.2km·7시간 소요)

■ 보통 ■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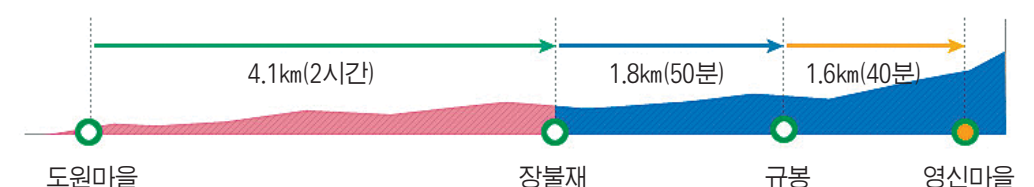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는 백마능선과 무등산 절경의 으뜸인 규봉을 경험할 수 있는 탐방로다.
▲안양산휴양림-안양산-백마능선-장불재(4.4km·2시간 30분)
휴양림에서 안양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1.4km이다. 절반 이상이 급경사지인 탓에 노약자나 초보 탐방객들에게 힘든 코스다. 겨울에는 결빙 등으로 탐방로가 미끄럽다. 백마능선길은 호남정맥 구간으로, 탐방객의 이용이 잦은 코스이다. 1시간 30분 정도 더 가면 장불재다.
▲장불재-규봉-신선대갈림길-복산(5.3km·2시간 20분)
장불재-규봉 구간은 흙길과 너털지대가 완만하

게 형성돼 있다. 규봉방향으로 30분 정도 이동하면 석불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나오는데, 조그마한 약수터도 있다. 석불암에서 15분만 더 가면 규봉암이다. 규봉암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삼거리에 도착하는데, 광일목장과 교막재로 갈라지는 갈림길이다. 조금 더 걸다보면 신선대입구 이정표가 나온다. 복산은 우측 신선대 방향으로 진입한다.
▲복산-담양 경성리(4.5km·2시간 10분)
복산에서 초원지대를 지나 억새를 헤쳐 오르면 T자 능선 갈림길로 오르게 된다. 백남정재까지는 봉우리를 오르내리게 되는 데, 내리막길은 급경사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백남정재에서 좌측 길을 따라 2.5km를 내려가면 경성리다.

도원마을~규봉 구간(7.5km·3시간 30분)

■ 보통 ■ 어려움



장불재를 거쳐서 무등산의 절경 중 가장 으뜸으로 치는 규봉을 보고 내려오는 탐방길이다.
▲도원마을-장불재(4.1km·2시간)
아늑한 숲길로, 좌측으로는 안양산에서 장불재로 이어지는 백마능선을 볼 수 있는 코스이다. 큰 무리는 없지만 중간중간 경사가 있으므로 체력에 맞춰 느린 탐방을 하는 게 좋다.
▲장불재-규봉-영신마을(3.4km·1시간 30분)

장불재에서 45분 정도 가면 규봉암이다. 규봉암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말사로 7세기경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625-702)가 창건했다. '규봉을 보지 않고 무등산을 보았다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등산 절경 중 으뜸이다. 규봉에서 영신마을로 하산하는 길은 약 1.6km 거리로 40분 소요되며, 완만한 구간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돌완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화생이생	취학어린이(도동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ole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오시는 길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